

### 도르트문트 '친선전 제안' 전북 3번이나 되자...왜?

최강희 "훈련 초 강팀과 경기 부담" 집요한 구애에 '15일 친선전' 수용



전북현대대는 6일(한국시간) 전지훈련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18일까지 이곳에 머물며 체력훈련을 소화한 뒤 두바이로 이동해 다음달 1일까지 실전을 겸한 2차 탐금질을 진행한다.

올해로 2번째를 맞은 전북의 UAE 전훈은 특별하다. 이유가 있다. 15일 두바이 자비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친선경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분데스리가의 양대산맥을 구축한 도르트문트는 2015~2016시즌 후반기를 앞두고 7일부터 16일까지 두바이에 짧은 훈련캠프를 차렸다.

K리그 프리시즌 친선경기로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 붙을 만한 매치업이 성사됐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다. 전북은 3차례나 이번 경기를 거절했다. 계획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도르트문트가 두바이에 온다는 정보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도르트문트에서 먼저 요청해왔다. '9일 친선경기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도르트문트는 11일에서 14일로 거둬 달 짜를 바꿔가며 친선경기를 제의했다. 이 때도 최 감독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체력훈련 초반 강팀과의 무리한 실전은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포기할 법도 한데, 도르트문트는 집요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앞서 섭외한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를 취소시키면서까지 전북에 매달렸다. '15일에 하자'는 4번째 요청에 최 감독도 결국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도르트문트가 남다른 정성을 쏟은 이유는 뭘까. 전북의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이 큰 역할을 했다. 도르트문트는 전북이 올랭피크 리옹(프랑스)과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013년부터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세계 여러 클럽들과 친선경기나 자매결연을 하고, 전훈지를 옮겨가며 모기업(현대자동차) 홍보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전북과 도르트문트가 15일 경기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다.

최 감독은 "모기업과 구단 브랜드 가치가 증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기회도 오는 것 같다. 일주일여 훈련으로는 몸 상태가 70% 선에 불과하나 망신 당하지 않게끔 잘 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이승우도 백승호처럼 복귀"

최고 유소년팀 후베닐A서 훈련 시작 엔리케 감독 "실전감각 회복이 중요"



일단 서두를 필요 없이 차근 차근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엔리케(46) 감독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가 풀려 후베닐A에 복귀한 이승우(18·사진)와 백승호(19), 두 한국인 유망주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축구전문매체 골닷컴은 7일(한국시간) 엔리케 감독이 둘에 대해 "구단이 정해진 곳에서 사랑하는 축구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백승호는 지난해 18번째 생일을 맞아 FIFA의 팀 합동훈련 및 공식경기 참가 금지 징계에서 벗어났고, 이승우도 6일 만 18세가 돼 자유의 몸이 됐다. FIFA는 2013년 2월 '18세 미만 해외 이적 규정'을 위반했다며 FC바르셀로나를 징계했고, 이승우와 백승호는 이후 소속팀 공식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중간에 징계가 강화되면서 팀 훈련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이승우에 이어 백승호까지 지난해 7월 성인팀인 FC바르셀로나 B팀(2군)으로 승격된 만큼 징계가 풀린 이들이 곧바로 B팀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일단 둘은 최상위 유소년팀인 후베닐A에 포함되며 복귀 절차를 밟게 됐다.

엔리케 감독은 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복귀한 백승호를 예로 들며 이승우도 팀 훈련에서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감각을 끌어올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리케 감독은 "이승우도 백승호와 같은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닷컴은 이승우의 후베닐A 복귀전이 11일 예브로 원정경기보다는 18일 코르네티아의 홈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돌아온 데얀 "옛 영광 재현하겠다"

3년만에 FC서울 컴백

"내집과 같은 서울...을 시즌 목표는 우승 돈보다 만족이 우선...특히 가족들 행복 박주영·아드리انو 홀름...호흡 잘 맞출 것"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FC서울로 왔다."

3년 만에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선수 데얀(35·몬테네그로)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데얀은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유현, 조찬호, 신진호 등과 함께 입단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내 집과 같은 서울로 돌아와 기쁘다. 기회를 준 구단에도 감사하다. 이전에 K리그에서 많은 기록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났다. 올 시즌 준비 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대회든 우승트로피는 들어올릴 때마다 좋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K리그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이 즐비하지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목표를 위해 서울 유니폼을 입었다"며 우승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데얀은 서울에서 2008년부터 6년간 뛰면서 2012년 K리그 우승, 2013년 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과 K리그 득점왕 3차례 등 여러 기록을 남긴 뒤 2014년 중국으로 이적했다.

데얀은 서울로 복귀하면서 연봉 등 계약조건을 중국에서 뛰던 당시보다 크게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수생활을 하면서 경력에 대한 만족이 우선이었다. 돈은 그 다음이다. 가족이 이전에 한국에서 즐겁게 지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적을 결심하면서 가족



데얀(왼쪽)이 돌아왔다. 올 시즌 전북현대대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FC서울은 데얀의 가세로 한층 힘을 얻었다. 데얀이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최용수 감독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한국에서 좋았던 시간들을 많이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데얀의 영입으로 기존의 아드리انو, 박주영과 함께 막강한 공격진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3명의 공격수가 동시에 출격하는 등 공존에는 제약도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얀은 이에 대해 "중국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의 경기를 간혹 봤다. 박주영, 아드리انو 모두 좋은 선수다. 정조국처럼 같이

뛰어 스타일을 아는 선수들도 있다. 훈련을 통해 선수들과 잘 호흡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이 같은 대답을 들은 서울 최용수 감독은 "객관적으로 3명은 다 다른 다양한 성향을 지녔다. 당장 동시출전을 논하는 것보다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자세와 몸을 잘 만드는 게 먼저다. 팀으로 보서는 무서운 공격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1골 내주더라도 2골 넣을 수 있다는 확

신을 선수들에게 심어주면서 공격적인 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얀은 입단식에서 등번호 14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서울 관계자는 "데얀이 당초에는 몬테네그로대표팀에서 달았던 14번을 원했는데 등번호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데얀이 9번, 박주영이 10번, 아드리노가 11번을 달고 새 시즌을 치르게 된다"고 얘기했다.

성삼 |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 웃음 잃은 서정원 감독 "지금은 재창단하는 심정"

전력보장 전무에 주축 이탈 가능성도 '공격 2선·미드필더 진용' 그나마 위안



●재창단의 심정으로!

2016시즌 준비를 위해 4일 상견례를 한 수원 선수단은 6일 남해로 이동해 본격 탐금질에 돌입했다. 선수는 용병 3총사(카이오·산토스·일리안)를 포함해 30여명이지만 확

정인원이 아니다. 상당수가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했다. 언제든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하고 선한 미소가 사라진 서 감독은 험악했다. 꼭 다문 입술에서 마음고생이 일했다. 그럴 만 하다. 전력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 2년 연속 패권을 차지한 전북은 더 발전하려고 뛰고 있고, 오랜 라이벌 FC서울도 나름 알찬 행보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수원은 빈손이다. "지금 상황은 다시 창단하는 것과 다름없다. 답답하다. 집을 리모델링할 때 최소한의 기둥들은 남긴 뒤

벽들을 바르고 지붕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기둥마저 뽑혀갔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집을 지어야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

모기업 제일기획이 2년 전 구단을 인수한 뒤 자생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수원은 유망주를 발굴하고 기우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제일기획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리라 주변 우려에 대해 "이기는 경기를 하는 투자는 지속한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다. '필요하다면' 외부 영입도 한다고 약속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행보로 봐선 아닌 듯하다.

"주축들의 이탈을 이제 막을 도리가 없다.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다만 이들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기둥을 보여 성장한다. 그 기둥이 많지 않다. 더 이상 똘을 약속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없어 더 없이 슬프다."

2연속 준우승을 하며 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했다. "보상이 적지만 열심히 하고 열정을 쏟으면 좋은 날도 올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스승은 떠난다는 제자들을 불

잡을 명분을 잃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공들여 쌓은 탑이 대책 없이 허물어질 위기에 놓인 것을 바라보는 서 감독은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험한 웃음과 함께 "남들이 데려가지 않은 일부 선수들이라도 데려오고 싶다. 여전히 팔팔한 이병근, 최성용, 고종수, 신병철 등 우리 코칭스태프를 선수로 등록시키면 어떨겠느냐"는 농담으로 답답한 마음을 애들러 표현했다.

그래도 어두운 구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요소도 분명 있다. 미드필드 진용은 여전히 부닥쳐볼 만하다. '기존 실력 유지'는 가정 하에 공격 2선과 일부 미드필드 진용은 그럭저럭 버텨줄 수 있다고 서 감독은 기대한다.

지난해 3년 재계약을 한 서 감독의 임기는 이제 2년 남았다. 좋은 팀을 만들어내기까지 최소 3년이 필요하지만,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또 고만고만한 영건들만 모아놓고선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올해와 내년, 수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남해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메시 2골...바르사, 스페인 국왕컵 에스파뇰 대파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왼쪽 2번째)가 7일(한국시간) 출구장 캠프 누에서 열린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에스파뇰과의 16강 1차전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 수비수는 마치 먹장(?)을 잡듯 메시의 유니폼을 끌어당기며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메시는 2골을 넣으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바르셀로나(스페인) | AP뉴시스

### 부산 이정형, 울산현대로 임대



부산 아이파크는 7일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형(사진)을 울산현대로 임대 보내기로 했다. 그 대신 울산 소속으로 울림피드팀에 합류한 미드필더 이영재가 부산으로 임대됐다. 부산은 임대료를 받기로 했으며, 금액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은 "이정형 선수의 입장을 이해해 클래식(1부리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며 "미드필더 자원인 이영재를 임대로 영입해 전력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북, 제주 공격수 로페즈 영입 확정

전북현대대는 7일 지난 시즌 제주 유니타드에서 뛰던 공격수 히카르도 로페즈(26·사진)를 영입했다. 로페즈는 2015년 33경기에서 11골·11도움을 올리며 K리그 클래식(1부리그) 공격 포인트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지난달 초 로페즈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한 달여 만에 영입을 최종 확정했다.